

미네소타 한인회보 KAAM Newsletter



2020년호

훈훈한 성금 전달식

“To Heal and Restore Korean Businesses”

지난 2020년 7월 23일 (목)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To Heal and Restore Businesses” 모금 운동의 성금을 전달하는 조출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한 George Floyd의 죽음으로 인해 지난 6월 미네소타 사상 유례없는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한인들이 경영하는 많은 사업체들이 전소되거나 약탈을 당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인 사업인들을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에서는 온라인 모금 운동을 주최하였고, 미네소타 한인사회의 역대급 호응으로 목표액 2만불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뜨거운 성원과 사랑으로 모아진 기금은 피해를 입으신 6명의 한인사업체 대표들께 전달 되었고, 한인회 대표자들과 기부자들이 참석하여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수여자들은 역경에 처해 있는 본인들을 위해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준 미네소타 한인회의 사랑과 경제적 도움에 감사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COVID-19 상황에서 계획된 전달식을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관을 알콜과 세정제로 철저히 방역하였고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공간정리가 시행되었습니다.

한인회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Boxed lunch가 끝난 후 피해를 입으신 한 분 한 분의 폭동 당시의 가슴 서늘한 체험담과 그 후의 복구작업, 재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분치 않은 재해보험의 사례도 있었고 전소파괴된 옛날 건물의 청소 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비용 처리에 대해 고심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인 단체들의 도움으로 파괴된 가게를 정리하고 5주만에 사업을 재개하신 분들의 따뜻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피해 한인들은 극심한 충격과 파괴로 인한 상실과 절망을 딛고 서서 긍정적인 자세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를 표명하여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폭동으로 인해 심한 역경에 처한 한인 사업인들을 위해 격려와 위로를 표해 주시고 모금에 참여해주신 한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자 명단

피해한인 사업체 대표: 안대식, 서동선 · 류수희, 박경식, 김원, 박현국, 임진영
미네소타 한인회: 황효숙 회장, 황청수 이사장/윤경희, 남세현 건축위원장,
줄리언김 부회장, 김식철 이사, 김정은 이대동문회장, 김한나 사무총장



미네소타 한인회보

발행처	미네소타 한인회
발행인	황효숙
편집인	오은아, 김한나, 김미정
주소	1331 County Road D Cir E St. Paul, MN 55109
전화	(651) 440-9192
이메일	contact@mnkorea.org
홈페이지	www.mnkorea.org

2020년도 미네소타 한인회

회장	황효숙
부회장	양경희, 김줄리언
이사장	황청수
이사	강태문, 권규식, 김식철, 김줄리언, 김현, 남세현, 박태준, 브룩 뉴매스터, 양경희, 오은아, 임진현, 정영표, 캐서린 주, 한현숙
사무총장	김한나, 김미정

한인회관 운영회

회장	남세현
간사	황효숙
위원	안대식, 윤미자, 한현숙, 황청수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황효숙 | 46대 미네소타 한인회장

존경하는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시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한인회를 대표하여 가내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 생애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해입니다. 세계
70억 인구의 일상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은 바이러스가
지난 3월 미네소타에도 찾아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총체적 난경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네소타 한인회는 새로이 황청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희망찬 포부와 열정을 가진 이사진이 발족되어
2020년도의 계획에 힘찬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발된 COVID-19 상황으로 인해 국제 민속제전을
비롯하여 정기적 순회영사 업무, 가을 체육제전, 연말총회 등
모든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5월말 George Floyd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와
폭동으로 조용했던 미네소타는 세계적 관심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고, 많은 교민들의 사업체가 전소되고 약탈
당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미네소타 한인회가 주최한
모금운동에 우리 한인사회는 역대급 호응을 보이며 피해
입으신 분들께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그 선한
행동이 여러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팬데믹과 폭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불안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 교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사회적 대면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한인회도 많은
도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소통
수단을 대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메일 소통을
강화하며, 재무관리도 가능한 한 on-line처리로 바꾸고,
서류 정리도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도 온라인
수업과 철저한 방역을 수반한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봄과
가을 두 학기를 모두 무사히 마치었습니다. 디지털로서의
전환으로 차세대가 편히 일할 수 있는 구조적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와 인내로 지켜 주시고 격려해 주신 황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는 새로 단장된 한영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새로 추가된 영문 홈페이지는 영어를 주로 쓰는
차세대 한국인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한인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영어권 독자들도 증가하여 미네소타 한인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열 달이런 긴 시간 동안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신 교민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힘겨웠던 2020년을 뒤로
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복지센터 방문



2020년 5월 4일 COVID-19 상황이 온 미네소타를
불안과 공포로 휩쓸고 있던 즈음 황효숙 한인회장은
한인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비대면 정책이 시행되어 은혜의 집
어르신들은 완전 고립과 우울함으로 힘들어 하고
계셨고, 한인복지센터 직원들은 팬데믹의 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기 위해 한인회는
정성들여 만든 만주를 예쁜 꽃으로 포장하고 격려와
감사의 뜻을 담은 카드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2월
7일에는 필요한 마스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스크 400장을 권광자 사무총장님과 서윤순
매니저님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인회 한글학교

유영란 | 미네소타 한인회 한글학교장

한인회 한글학교 정규 학사 일정은 각각 13주간의 봄학기과 가을학기입니다. 2020년 봄학기는 1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5개반 3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례, 한지공예, 태권도, 한국무용 등 많은 문화 활동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COVID-19 상황으로 3월 중하순에는 휴강으로 들어갔지만,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반 담임선생님들이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아반부터 성인반까지 봄학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온라인 수업을 성공적으로 끝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2020년 가을학기는 총 13주간의 일정으로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입니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2개의 학생반과

고등학생 이상의 1개 성인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였습니다. 유아반은 지하 교실에서, 초등반은 1층 교실에서, 성인반은 화상으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가을학기에는 태권도, 검도와 한국무용 (아리랑, 부채춤) 등으로 학생들이 한국어와 더불어 한국 문화를 신나고 재밌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학기에도 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인회 웹사이트 www.mnkorea.org 에서 한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봄학기: 다례 체험



2020년 가을학기: 검도 배우기

2019년 한인회 연례총회 및 만찬

2019년 한인회 연례총회 및 만찬이 12월 7일 로즈빌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한인회의 일년간 사업 보고와 재정 및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한인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한현숙 전 회장님께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총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시카고 총영사관 차웅기 부총영사관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기조연설은 한인회 이사장으로 6년간 봉사하신 토목과 태양광 설계회사 EVS의 대표 김권식 박사님께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를 주제로 재미있는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Silent Auction 모금에서는 한인 여러분께서 기증해 주신 여러가지 미술품과 상품권 등으로 많은 성금이 걷혔습니다. 특별히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재능 기부를 해주신 여러 공연자들의 (가야금: 이수진, 소프라노: 현은혜, 피아노: 이은총, 특별출연: 뽐부기 프렌즈)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연으로 연말 총회를 더욱 더 감동과 즐거움으로 빛내 주었습니다. 특별히 김병문 박사님과 김권식 박사님의 테이블은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인회를 향한 1.5세의 한마디

임진현 | 한인회 이사

미네소타 한인회가 지역 한인 사회와의 연관성을 높이며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 제 생각을 짧게나마 적어 봅니다. 미네소타 한인 1.5세대들의 한인회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며, 1.5세인 저 자신의 관점에서 답을 해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5세 뿐 아니라 2세와 입양인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들의 미네소타 한인회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인회의 이사로 참여하기 전에는 한인회는 고연령의 한인 교포들의 단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인 체육대회와 같은 스포츠(소프트볼, 축구 등) 관련 행사를 할 때만 한인회의 존재를 각인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체육대회 조차도 교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는 행사라고 여겼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한인회와 연관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인회가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의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미네소타 한인회가 교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뜻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세대의 참여를 꼭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1.5세라 불리는 차세대 한인 교포들에게 한인회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실제로 한인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사인 저로서도 한인회가 교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인회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한인회 회원 모집은 오로지 회원 가입비를 걷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미네소타 한인회가 차세대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대회는 분명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행사에 대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인회가 폭넓게 교민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행사들을 매해 주최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기를 적극 활용한 행사들도 한인회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 차세대들이 참여를 고대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한인회가 매해 주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음식점들로 부스를 세워 음식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한인회가 음식 시연을 하며,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소셜 클럽을 통해 한인 차세대들의 모임 (스키, 골프, 사냥 등과 같은 스포츠 관련 모임)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없는 저로서는 십대 이십대를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렵지만, 젊은 차세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몇년간 이사회의 임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한인회가 겪고 있는 예산 부족 문제는 물론, 차세대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헌신하여 교포사회의 벽을 허물어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황청수 | 미네소타 한인회 이사장

한인회 이사진을 대표하여 가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인회가 주관하여 진행해 왔던 Festival of Nations, 시카고 총영사관 순회 영사 업무, 가을 한인 체육회 등의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George Floyd 사건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네소타 교민들의 안전과 도우미 역할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봉사하시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고해 오신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현명한 대처 체제가 확립되어서 다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순탄한 일상 생활로 돌아가서 미네소타 교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두운 밤과 거친 풍랑만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태양은 다시 솟아오르고 고요함은 제 자리를 다시 찾아오듯이 희망과 포부를 갖으시길 바라며, 또한 약 반 세기 만에 무척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강국을 이룩한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화된 일상 특별기고 1

김 현 | 미네소타대학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 교수/한인회 이사

지난 해 마지막 날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종류의 폐렴 환자들을 보고한 이후 20일 만에 미국에도 첫 환자가 발생했고, 그 후 거의 두 달 만인 3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4월 17일 연방정부에서 미국 모든 주에 재난 선포를 하면서 미네소타를 비롯한 모든 주에서 사회 기능이 정지되고 우리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재난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삶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제, 군사력 뿐만 아니라 보건 역량에서도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미국이 10월 현재 760만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21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아직도 하루에 40만명이 넘는 새로운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도 3월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학기 개학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며 10월 5일에는 하루 1,075명의 확진자가 보고되며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2만4천명 정도의 적은 확진자가 나온 한국과의 차이가 뭘까 다들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국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역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비교군이 있다는 것이 행운일 정도로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서도 많이 다루었지만, 한국의 성공은 주로 네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선제적 대응, 둘째로, 잦은 검사, 셋째로, 추적 조사와 격리,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협조입니다.

미국은 이 네가지 모든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지만, 사회 인프라와 보건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 이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정치적 리더쉽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연관시키는데 불편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국가적 위기를 넘어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는 질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역할이 의료진이나 과학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행정부의 수장이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TV나 신문을 보며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숨죽이며 기다리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구요. 어쩌면 앞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예방 및 치료법은 앞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예방수칙을 따르는데 잘 협조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 접촉을 차단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최대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감염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 부분을 국가에서 관리해줌으로 인해 성공적 방역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협조의 경우 정부나 전문가들의 지시와 권고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동안 방역 정책에 많은 실수를 해와서 과연 잘 따르기만 하는게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좋은 예가 마스크 사용입니다. 미국 최고의 보건기구인 CDC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효능이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미네소타 대학에서 코로나 대응관련 초기 긴급회의에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CDC와 WHO의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교민분들께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방수칙을 보시고 생활에 적용하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정신건강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우울감에 대해 보고가 되고

<다음 장에 계속>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 목회서신 특별기고 2

George Floyd의 죽음으로 인해 돌발된 사건에 대한

사랑하는 미네소타 한인 여러분,

지난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는 미네아폴리스 경찰의 폭력적인 체포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I can't breathe!'라는 플로이드의 신음소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억압과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에 미네소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Black Lives Matter 시위를 통해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약탈과 방화 때문에 미네소타 한인사업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1.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들이 경험하는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함께 아파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2.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사는 비백인(People of Color)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반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고귀한 존재이며 (창세기 1:27),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28).

3.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경찰의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권한 행사가 제도적으로 개혁되고, 사법절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4. 모든 시위와 의사표현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5. 약탈과 방화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미네소타 한인 공동체의 위로와 응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곁에서 함께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인종차별의 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른 인종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문제를 외면하고 방관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실천하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미네소타 교회 협의회 회원교회 일동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화된 일상 앞장에서 계속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로 전환 하면서, 집에만 있게 되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주도하는 미네소타 병원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연구에 참여하신 거의 모든 의사, 간호사분들이 인터뷰 도중 울음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지인이 죽거나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코로나 극복이 언제될지 모르는 미래의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만성적 우울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에도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우울감이나 감정에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되면, 미루지 마시고, 주치의에게 문의하시거나, 미네소타주 보건국 정신건강 서비스에 연락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주정부 서비스 (833-437-3466) 이외에 여러 [하이라인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교민 여러분, 코로나를 비롯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 모두 잘 이겨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권광자 | 한인복지센터 사무총장

연장자들께서 우울증 증세도 보이기 시작할 즈음, 각 교회나 한인 단체 또는 많은 분들이 기부금도 보내주시고, 개인보호 장비 그리고 선물 패키지도 보내 주신데 힘입어 큰 용기와 자신을 얻어 이 고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 숫자가 8명이 나왔지만 증상 없이 지나간 연장자도 있고, 심하게는 산소마스크에 의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한 분도 코로나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사회 복지부에서 보호 장비와 테스트 장비를 지원받아



복지센터가 하는 일이 Front line health worker 로 정의가 되어 전문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일 할 수 있게 용기와 도움을 주신 교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길 희망합니다.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회는 주정부와 IRS에 인가된 501(c)(3) 비영리기관으로서, 미네소타 한인들의 모금으로 운영되며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12월					2020년 1월-12월 15일				
한인회비 \$30	권광자	김병문	유명숙	장인숙	최의숙	권규식	남세현	신대현	윤경희	줄리안김
	권규식	김선희	유수잔	장태원	한형호	김윤주	박대선	양경희	윤군자	한현숙
	권호아	김은영	이병채	조 남	허승희	김지연	박성철	오은아	윤철호	황청수
	김권식	김종례	이승화	조용현	홍성우	김한나	박태준	오인성	정영표	황효숙
	김려식	김태성	이인석	줄리안김	홍완표					
		신대현	이정희	최선미	황청수					
	Kim Park Nelson		Myung Ju Lee							
이사회비 \$300/\$500	\$300 in 2019					\$500 in 2020				
	권규식 정보용					강태문	남세현	오은아	줄리안김	황효숙
찬조금 Up to \$99	권광자	남도현	이정희	조용현	황청수	김식철	박태준	임진현	한현숙	
	권규식	신대현	장인숙	이병채		김 현	양경희	정영표	황청수	
\$100-\$299	김선희	유명숙	정태원	한형호		신대현	오인성	캠프 조선		
	강명섭	김수희	백진현	Kathryn Joo		권규식	남세현	윤군자		
\$300-\$600	김민선	남세현	최선미			김지연	박성철			
	김병문	남세현	이명주	이창재	허승희	정영표	황효숙	CTS America 기독방송		
\$900-\$1,000	한인장로교회					황청수	황효숙	시카고 총영사관		
문화회관 건립기금	김은영 \$20 김태성 \$130 김려식 \$300 김권식 \$1,000 황효숙 \$1,000 남세현 \$3,000					황청수 \$10,000				
비고						폭동 피해자를 위한 모금 운동은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한인 관련 뉴스 및 행사

김권식 박사, 2020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올해의 기업인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Korean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인 상에 미네소타의 대표 한인 기업인 EVS의 김권식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1980년도부터 미네소타에서 환경 공학 사업을 시작한 김권식 대표는 40년 동안 EVS의 사업적 성장 뿐 아니라 대체 에너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EVS는 환경 공학 기업으로 민간과 정부 대상의 태양열 에너지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KSEA)는 1971년 창립이후 49년간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며, 현재 일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한인대표 연구단체입니다. 올해 수여식(UKC2020)은 12월 14-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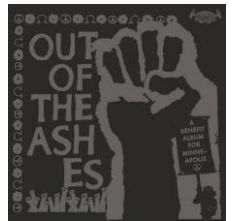
세인트폴 “카터” 시장의 7 Mile Sportswear 방문

2020년 8월13일 세인트폴 시장 Melvin Carter는 채널9 폭스뉴스팀과 함께 University Avenue에 위치한 “7 Mile Sportswear” 상점을 방문하였습니다. 7 Mile Sportswear (대표 임진영)는 5월말 George Floyd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으로 인해 가게 전체가 약탈당하여 큰 손실을 입었으나, 직원들과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5주라는 믿기 힘든 짧은 시간에 복구하여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채널9 폭스뉴스 방송을 통해 Carter 시장은 임진영 대표의 재건에 대한 열정을 치하하며 “우리 모두의 정성 어린 노력으로 커뮤니티가 다시 일어서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를 방문한 황효숙 미네소타 한인회장은 “젯더미와 같은 상태에서 단 5주라는 짧은 시간에 사업을 일으켜 세워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미네소타 한인들의 긍지를 높여주며 미네소타 커뮤니티의 모범이 되는 일”이라고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문화 공연

성악가 박미경씨와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 박사는 지난 여름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 죽음 이후 촉발된 시위로 피해를 입은 단체들을 돕기 위한 디지털 자선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트윈시티 지역의 15팀의 음악가들이 참여한 이 앨범의 판매 수익금은 Migizi (Association for Native American Youth)와 Association for Black Economic Power의 건물 복구작업에 쓰였습니다.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 박사가 Intercultural Mutual Assistance Association이 주최하는 Virtual Walk around the World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였습니다. 6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은 팬데믹의 여파로 취소되고 페이스북 IMAA의 페이지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커뮤니티들의 공연 동영상을 올려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장미 로체스터 한국 장구학교의 Mira, Greta, Heder, Daniel 씨도 같은 행사에 참가하여 장구를 연주했습니다.



한인교회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네소타 한인교회들은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MAKA 장학재단 연례 행사

오은아 | 미네소타 한미장학재단 회장/한인회 이사

미네소타 한미 장학재단 (MAKA)의 연례 행사인 <Celebrating Tomorrow>는 올해로 25 주년을 맞이하며, 한국을 모태로 미네소타주에서 훌륭하게 성장한 16 명의 뛰어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MAKA는 매년 대학입학을 준비중인 우수한 12 학년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연례행사를 통해 한인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시작과 장학회의 발전을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나눔의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한인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 풍성한 식사로 이어지는 이 나눔의 자리에는 MAKA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MAKA는 1995년에 <한인어머니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후, 장학재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역으로 2006년 지금의 <미네소타 한인장학재단>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MAKA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긍지를 찾고, 한인 세대들이 그 뿌리와 정서를 이어가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문화와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감당 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25년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MAKA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수는 이미 30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자랑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많은 한인분들의 관심과 격려,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8일 오후 5시에 열린 25회 <미네소타 한인 장학재단> 연례행사는 미네아폴리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힐튼호텔에서 성공적으로 치뤄졌으며, 훌륭한 한인 음악인들의 연주와 장학생들의 멘토로서 전하는 특별강연은 물론, 장학금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에 80여명의 참석자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습니다. 선발 지원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 에세이 주제로 <한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직면하는 때는 언제이며, 여러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서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과 답변을 찾고있는 과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현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거나 싫었다는 경험을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우수하고 각종 클럽 활동 및 봉사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장학생들이 현지인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릴때부터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는 고민은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MAKA는 이처럼 한국인으로서 훌륭히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재단임과 동시에 이전의 우리도 경험하고 지금의 세대들도 변함없이 갈등을 겪고있는 문제점을 함께 나누고, 그 시기를 지나온 선배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역할까지도 함께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또 이 땅에서의 한인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고 지속하는 귀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쉽없이 달려온 지난 25년간의 장학지원 사업은 앞으로도 미네소타 한인사회에 지속적인 공헌과 자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장학사업은 크고 작은 헌신과 도움의 손길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에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과 격려 및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MAKA는 26주년 연례 장학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 MAKA의 장학사업에 함께 동역하는 동안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재단이자 많은 한인 청년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기에, 이 소중한 장학사업에 다시 한번 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여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반 정보 및 문의: www.makaweb.org

도네이션/후원/ MAKA 회원: eunahoh320@gmail.com



풍요속의 추석과 대한민국 정부 환도식 특별기고 3

김병문 박사 | 명예종신회원/미국 한국전 참전 재향군인회/미국 장진호 전투 참전 재향군인회

우리의 명절인 음력 설날과 추석날은 아름다운 전통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경로사상과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한다. 우리는 금년 추석을 10월 1 일에 맞이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부모들을 뵙기 위해 KTX, 고속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여정에 나선다. 이 날은 또한 성묘하여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며 명절의 의미를 내재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미군과 국군이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을 막아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50 년 9 월 28 일에 있었던 정부 환도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0 년 6 월 25 일 북한군은 소련과 중공의 허락과 지원을 받고 대한민국을 침공하였고, 6 월 28 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국군은 무기 부족, 훈련 부족, 지휘관 부족,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를 거듭했다. 국군은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으로 긴급 파병된 미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도처 - 다부동, 영산, 진동리 (마산 서쪽) - 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9월 25 일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계획이 성공했다. 이 작전에 미 해병 1 사단 (25,040 명), 미 해병에 소속된 국군 해병대 (2,786명)와 미 7 보병사단 (24,815 명)이 투입되었고, 230여 척의 해군함정이 동원되었다. 9월 27 일 미군과 국군은 북한군과의 시가전 끝에 서울을 해방시켰다.

맥아더 장군은 파괴된 중앙청 (구 조선총독부 청사로 김영삼 정부 때 철거)에서 9월 28일에 있었던 환도식 장면을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주기도문 후 나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본관의 장교들과 본관은 다시 군무로 돌아가며 각하와 귀국 정부에 민사 책임을 이양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는 일어나서 나의 손을 붙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장군께 나와 대한국민의 영원한 감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군을 경모합니다.” 그는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구세주와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식이 끝난 후 서울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박수치며 작은 종이 [국]기들을 흔들었다.”

필자는 전쟁이 발발한 때 7 살이었다.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적 의미와 서울 환도식에 관해 알게 되었다. 미 해병 5 연대 3 대대장 로버트 태플렛 중령과 휘하 해병들은 인천상륙작전에 있어 제1의 난제인 월미도를 점령한 후 서울 수복 전투에 앞장섰다. 작년, 나의 가족은 한국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4 년에 제정한 장학사업에 태플렛 중령의 이름을 딴 기명 장학금을 포함시켰다. 참고로, 국군은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된 후 대규모의 행사들을 주최하곤 했다. 풍요속의 추석날 미군과 국군에게 감사한다.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KAWA) 활동

1981년도에 발족되어 현재 39년째 활동중인 미네소타 한미여성회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of Minnesota)에서는 올해 한인 사회와 한미 친선 관계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미네소타 한미여성회는 올 2020년도 미네소타주 COVID-19 PANDEMIC MASK DRIVE 에 참여했습니다. KAWA MN 회원들의 찬조금, 마스크 재료 기증, 재봉 봉사와 KAWA USA 의 기부금 등으로 총 170 개의 마스크 기부를 완료했습니다. 완성된 마스크는 Rosemount 소방서, Burnsville Park Nicollet 병원, Richfield 난민 오피스, 한인복지센터, 양로원과 한미여성회 노인 몇 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Black Lives Matter 시위로 인한 폭동으로 방화와 약탈을 당하신 한인 상업인들을 위한 한인회 모금운동에 한미여성회 회원들께서 참여해 주셨고, St. Paul 지역 University Avenue 에 폭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한 헤어 용품 상점의 정돈정리에도 한미여성회 회원 세분께서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한미여성회는 올해 한인사회와 트윈시티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스마트

Kim's Asian Market

월-토(M-Sa): 10AM-7PM
일(Sun): 11AM-5PM
689 N. Snelling Ave. St. Paul 55104
(651) 646-0428

동양마켓

Dong Yang Oriental

월-토(M-Sa): 10AM-8PM
일(Sun): 11AM-6PM
735 45th Ave NE, Minneapolis 55421
(763) 571-2009

서울식품

Seoul Foods

월-토(M-Sa): 10AM-8PM
일(Sun): 12PM-6PM
1071 E. Moore Lake Dr. Fridley 55432
(763) 572-0079

LifeTree Clinic

Acupuncture & Herbal Medicine

생명나무 한의원

인애지심(仁愛之心)으로 치료하며, 이웃과 열방을 섬기고, 열매를 나누는 생명나무가 되겠습니다.

원장: 태규홍 (Dr. Kyuhong Tae, M.S., L.Ac.)
강민정 (Alice Kang, M.S., L.Ac.)

진료과목
한약/침술 치료/마사지 치료

진료안내
통증 치료/교통사고 후유증/직장상해

진료시간
Burnsville/Edina/Mpls/Woodbury

진료예약 952-435-7349 www.lifetreeclinic.com

의료보험 가능함 (Healthpartner/Cigna/United Healthcare/Medica, BlueCross and BlueShield, PreferredOne, Ucare 외)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비용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관

MIRROR OF KOREA

1호점: St. Paul
(651) 647-9004
761 Snelling Ave N., St. Paul 55104

2호점: Eden Prairie
(952) 934-3455
962 Prairie Dr. Eden Prairie 55455

HOURS:
M, W, Th & F, 11AM-9:30PM* | Tues, Closed
Sat, 12PM-9:30PM, Sun, 12PM-9PM
*Summer & Winter Hours, Close at 9PM

HOBAN

Korean Restaurant

다양한 종류의 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한국음식과 함께 한국의 정을 느껴보세요.
Various kinds of Korean dishes available.
Try delicious Korean cuisine at Hoban Restaurant.

HOURS:
M-Sa (월-토): 11AM-10PM
Sun (일): 11AM-9PM

1989 Silver Bell Road, Eagan 55122
(651) 688-3447
www.hobanrestaurant.com

KING'S

King's Restaurant

Fine Korean Cuisine

-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 캐주얼 레스토랑
- 아시아식 점심 뷔페
- 스시,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
- Korean casual restaurant warm atmosphere
- Asian lunch buffet
- Various Korean menus such as sushi, Bulgogi, Japchae

Sun-Thu (일-목): 11:30AM-9:00PM
Fri & Sat (금-토): 11:30AM-9:30PM

1051 E. Moore Lake Drive, Minneapolis 55432
(763) 571-7256
www.kingsrestaurant.com

DOONG HAE

DONG HAE

KOREAN GRILL & SUSHI 동해

미네아폴리스에서 맛있는 식사와 테이크아웃
뛰어난 요리와 훌륭한 서비스
고품질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
Delicious Korean foods in Minneapolis, dine-in & takeout
Excellent cuisine and great service
We use fresh and high quality ingredients only

251 N. 1st Ave, Minneapolis 55401 | (612) 333-1999
www.donghaekoreangrillsushi.com

Mon-Sun (월-일): 11:00AM-9:30PM

로렌스 여행사

Lawrence Travel Inc.

- 최고의 서비스
- 고객 만족 최우선
- 저렴한 국내외 항공요금
- 믿을 수 있는 관광 패키지
- The Best Service
- Customer Satisfaction First
- Affordable Airfare for Domestic & Overseas
- Reliable Tour package

로렌스 여행사
(800) 451-1440
lawrencetravel@hotmail.com

611 Milwaukee Ave #165, Glenview, IL

부동산

Edina Realty

Susan Yoo Realtor
Minnetonka Hwy 7
612-68-3057(c)
952-839-1900 (o)
susanyoo@edinarealty.com

Buyer & Seller Services를 해드립니다.
(homes, commercial buildings, investment properties, business opportunities)

좋은 Marketing Plan만이 최고의 가격으로 신속하게 집을 팔 수 있습니다.

COLDWELL BANKER

5 STAR RATING

SELL, BUY, OR BUILD A HOME!

BURNET

손현수
HYOUNSOO LATHROP

Cell: (651) 233-8527
www.HyounsooLathrop.com

정보용 세무사

"신용과 정직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개인 비자: 세금보고 및 상담
채용감사
Payroll Services
연세 세금 예정 및 재무상담 세무보고
회사설립 등록 대행
해외 자산신고(FBAR)

첫번째 상담은 무료입니다

(952) 769-6765
www.actaxpayroll.com

5100 Edina Industrial Blvd.
Suite 228, Edina, MN 55439
Chung@actaxpayroll.com

미네소타 한인회비 및 찬조금 (KAAM Membership Fee and Donation) / 인적사항 (Contact Information)

회비 Membership Fee	☐ 일반 \$30 ☐ 학생 \$15 ☐ 이사회비 \$500			
찬조금 Donation	\$	문화회관 건립기금 Cultural Center Building Fund		\$
합계 Total	\$			
한글이름 Name			영문이름 English	
주소 Address	Street			
	City	State	Zip	
연락처 Contact	Phone	Email		

- Check으로 납부시 Pay to Order of: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또는 **KAAM**
- 주소: KAAM, 1331 County Road D Circle E, St. Paul, MN 55109
- 문의: 651-440-9192, contact@mnkorea.org, www.mnkorea.org
- 12월 말부터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PayPal 을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 한인회는 IRS에 등록된 501(c)(3) 비영리기관이며 납부하신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1331 County Road D Circle E
Vadnais Heights, MN 55109

미네소타 한인회 웹사이트 개편: **한글**과 **영어** 홈페이지 출시

2021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미네소타 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 (KAAM)

한국어

English



Welcome to **MN Korea.org**
HOME of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Minnesota!